

#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경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 Relative Importances of Life Domain Elements Concerning Quality of Residents' Life

—Focused on Kyungsan City Area—

대구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채정숙  
교수 조희금  
부교수 박총선  
부교수 정영숙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Taegu Univ.

*Professor*: Jung Sook Chae

*Professor*: Hee Keum Cho

*Associate Professor*: Chung Sun Park

*Associate Professor*: Young Sook Ch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is to measure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nd fin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various elements of life domains, taking into the area of residence and sex account. This paper is assuming that quality of life is a function of not only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but also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lements. An instrument based on previous research was applied to 686 respondents living in Kyungsan area.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lements differs between the area of residence as well as the sex of the respond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ose factors are discuss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 I. 서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풍요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세계 각국은 질적인 면에서의 생활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를 지향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그 이노때보다도 「삶의 질」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추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전에는 물질적인 부가 곧 보다 나은 삶의 목표가 되어 왔으나 산업이 발전하여 물질적인 부를 누리게 되면서부터는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주로 경제지표에 의해서 복지수준을 평가하던 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삶의 질」향상을 국민복지의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다.

이에 「삶의 질」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가정학 등 각 관련학문 분야에서는 각자의 학문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삶의 질」을 경제적 측면 외에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객관적인 생활환경이나 조건을 반영한 사회지표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차츰 「삶의 질」을 인간의 가치체계와 결부된 '만족감' 또는 '행복감'으로 파악하게 되면서부터 정신적·주관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삶의 질」을 물질적, 경제적, 신체적인 면의 객관적 조건과 비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면에서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삶의 질」은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생활

전반을 통해서 느껴지는 주관적·심리적 상태와 모두 상호관련이 있지만 주관적 지표가 객관적 지표보다 「삶의 질」을 반영하는데 더욱 기여도가 높다고 밝힌 연구들(이기영, 1984; 문숙재·정은숙, 1985)도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지표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국가간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는 거시적·객관적인 지표가 중요시되고, 특정집단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는 데는 심리적·주관적인 지표가 많이 활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삶의 질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성요인의 체계화와 지표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 구성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밝힌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구성요인을 10개 생활영역으로 설정하여 이들 각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인지한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수립시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시, 읍, 면지역, 그리고 남, 여 각각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지한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는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대책 방안(채정숙 외 3인, 1996)의 후속연구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민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지역에 따른 삶의 질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삶의 질의 개념

개인이나 가족의 근원적인 목표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나은 상태, 즉 복지를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들어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램은 개인 및 가족과 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관련학계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체계적인 연구의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삶의 질이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모두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삶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함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무엇이 삶의 질을 규정지어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과정에 있다.

삶의 질에서 '삶'은 개개인의 생활을 나타내다가 보다는 인간의 삶(human life)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인간의 삶은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체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삶의 질

에서 '질'은 바람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Jan Drewnowski(1970)는 삶의 질은 복지수준 혹은 복지상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복지수준은 일정시점에서 개인 및 집단의 욕구에 대한 충족의 결과로서 인지된 상태라고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이 욕구에 대한 충족의 관계로 파악되는 효용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North Central Regional Research(이하 NCR이라 함)(1980)에서는 삶의 질은 삶의 여건과 관련영역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결과이고,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관련영역들의 만족도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정의한다. Campbell(1981)은 관련영역에 대한 삶의 경험과 개개인이 판단하고 느끼는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Slottije 등(1991)은 삶의 질은 개인이 생활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삶의 질이 경험을 필수요건으로 한 상대적인 개념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구현 등(1994)은 삶의 질은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삶의 종합적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박미석(1996)은 인간이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의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삶의 질이라 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삶의 질은 그 삶의 주체인 개인의 복지 혹은 복지상태이며, 그러한 개인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자 하며, 복지(welfare 혹은 well-being)의 사전적 의미가 '행복'하거나 '잘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복지의 실체를 규정짓는 생활영역들의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삶의 질의 상대적 중요도와 개념적 틀

삶의 질의 실체를 규정짓는 내용 및 영역들, 즉 무엇이 삶의 질을 좋게 또는 나쁘게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나, NCR 모형은 삶의 질의 구성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할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NCR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을 나타내

는 영역들을 조사하는 것이며, 연구의 핵심적 요인은 지역(area of residence)에 따른 영역별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즉, NCR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발전과 같은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가치관과 생활양식 및 생활표준 등이 상이하며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동일한 영역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통합체로서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NCR 모형이 적합한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다.

NCR 모형에 의하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삶의 질의 환경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속에서 개인이 교육, 건강, 가족, 경제, 주거, 취업, 여가 등과 같은 생활영역을 경험하고 있는 수준과 열망하는 표준, 가치와 목표 등의 기준에 따라 인지하는 주관적인 평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점은 각 영역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of life domains)나 기여도(contribution to quality of life)는 상이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생활영역들이 삶의 질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영역에 비해 다른 영역이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력을 지니거나 혹은 더 작은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목적이라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큰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크다면, 정책입안자들은 우선적으로 고용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고용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으로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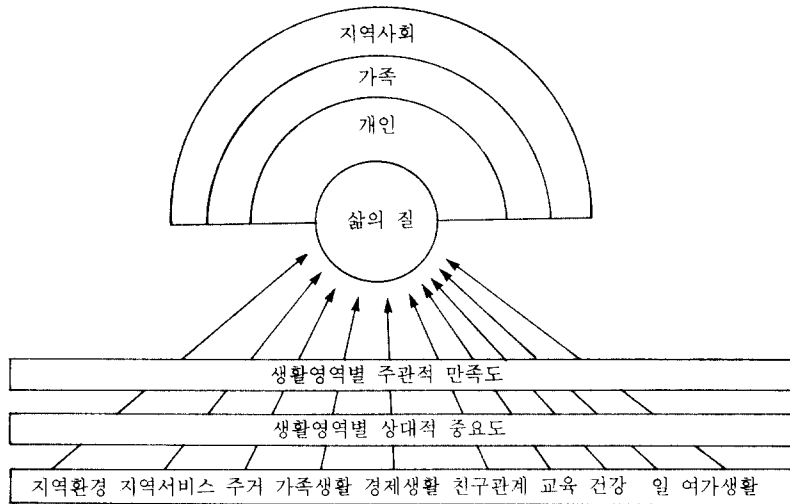
연구가 몇 편이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문숙재와 정은숙(1985)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영역이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비물질적인 면을 대표하는 가족관계 영역과 물질적인 면을 대표하는 경제생활 영역이며, 중요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여가생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중년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박미석(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유대감을 반영하는 가족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 건강에 대한 만족도, 경제에 대한 만족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 특히 중년기 삶의 질에 가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많으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의 기여도나 중요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도시주민(김진국, 1984; 문숙재·정은숙, 1985; 박미석, 1996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농촌주민(최은숙, 1981; 임정빈, 1990; 노자경, 1991; 김인숙, 1993 등)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지역간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삶의 질의 구성영역별 기여도를 살펴보고, 지역간 영역별 기여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념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지역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부와 군부가 통합되어 1읍 7면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경산시이다. 경산시는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인접하여 대도시의 주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1980년대 이후 여러 대학이 옮겨와 현재 지역내에 11개의



〈그림 1〉 삶의 질의 개념적 모형

대학을 가지고 있는 학원도시이며, 1990년 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3개의 신흥공업단지와 1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체가 입지해 있는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구시 및 인근 시, 군지역으로부터 유입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도시화되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집약형의 도시근교 상업농이 발달한 지역으로 주요 농산물은 대추, 포도, 복숭아, 사과 등이 유명하다.

이처럼 경산시는 도시적인 성격과 농촌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곳의 하나이며, 1995년 현재 인구가 약 16만명, 가구수 약 5만의 도시이다.

##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 기입식 및 범주화된 문항들, 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그 정도를 Likert형 5점척도상에 나타내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ampbell과 그의 동료들(1976)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개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불행하다 - 행복하다', '비관적이다 -

희망적이다', '지루하다 - 재미있다', '보잘것 없다 - 가치있다', '공허하다 - 충만하다', '불만스럽다 - 만족스럽다'의 6가지 어의차이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그 정도를 5점척도상에 나타내도록 하여 6문항을 합한 점수(6점~30점의 범위)를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으로 보았다.

## 3.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기혼의 성인 남녀이며, 예비조사는 1995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에 걸쳐 100명을 조사·분석한 후 설문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 조사는 10월 25일부터 12월 16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본조사의 조사대상은 다단계 층화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는데, 경산시의 1읍 7면 6개동을 각각 하나의 조사구로 하여 각 조사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를 할당하고, 각 조사구내에서는 해당수의 대상자를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1차조사는 농촌지역인 읍과 면지역에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2차조사는 도시지역인 6개동에서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고등학교 3개소를 임의추출하고, 해당학교에서 다시 1개반을 추출한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1차조사 350부, 2차조사 350부의 총 700부가 배부되어 전수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68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포, 백분률,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 시지역이 48.8%, 읍지역이 16.1%, 면지역이 35.1%로 나타났다.

성별 구조를 보면, 응답자의 49.9%가 남자이고, 50.1%가 여자이다. 연령은 40세이하가 전체의 56.6%를 차지하였고, 50대이상도 11.3%였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졸업은 6.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교육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비교적 다양한 집단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그러나 소득규모가 거주지역과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읍이나 면지역에 비하여 시지역의 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시지역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변 수	항 목	전 체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성 별	남 자	335 (49.9)	170 (52.5)	55 (50.9)	110 (46.0)
	여 자	336 (50.1)	154 (47.5)	53 (49.1)	129 (54.0)
연 령	35세 이하	198 (29.8)	69 (21.6)	32 (29.9)	97 (40.9)
	36 - 40세	178 (26.8)	113 (35.3)	20 (18.7)	45 (19.0)
	41 - 45세	119 (17.9)	77 (24.1)	12 (11.2)	30 (12.7)
	46 - 50세	94 (14.2)	46 (14.3)	19 (17.8)	29 (12.2)
	51세이상	75 (11.3)	15 ( 4.7)	24 (22.4)	36 (15.2)
교 육	초등졸 이하	42 ( 6.7)	18 ( 6.2)	8 ( 7.8)	6 ( 6.9)
	중 졸	119 (19.0)	59 (20.2)	15 (14.6)	45 (19.5)
	고 졸	275 (43.9)	124 (42.4)	45 (43.6)	106 (45.9)
	대졸 이상	190 (30.4)	91 (31.2)	35 (34.0)	64 (27.7)
가계소득	100만 이하	71 (13.0)	28 (11.9)	15 (16.0)	28 (13.0)
	101 - 150만	119 (21.8)	48 (20.3)	14 (14.9)	57 (26.5)
	151 - 200만	144 (26.5)	84 (35.7)	23 (24.5)	37 (17.2)
	201 - 250만	67 (12.3)	26 (11.0)	10 (10.6)	31 (14.4)
	251 - 300만	62 (11.4)	27 (11.4)	14 (14.9)	21 ( 9.8)
	301만 이상	82 (15.0)	23 ( 9.7)	18 (19.1)	41 (19.1)
직 업	전문·관리직	81 (12.1)	46 (14.2)	14 (13.0)	21 ( 8.9)
	사무직	106 (15.8)	47 (14.5)	20 (18.5)	39 (16.5)
	판매·서비스직	34 ( 5.1)	15 ( 4.6)	9 ( 8.3)	10 ( 4.2)
	사영업	95 (14.2)	38 (11.7)	22 (20.4)	35 (14.9)
	생산기능직	88 (13.2)	56 (17.1)	10 ( 9.3)	22 ( 9.3)
	농·축산직	51 ( 7.6)	12 ( 3.7)	8 ( 7.4)	31 (13.1)
	무직/전업주부	214 (32.0)	111 (34.2)	25 (23.1)	78 (33.1)

\* 무응답의 처리로 각 변수별 빈도의 합계에 차이가 있음.

의 월평균 총가계소득은 약 200만원, 읍지역은 230만원, 그리고 면지역은 285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응답자는 시지역보다 읍이나 면지역이 많으나 3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시지역은 불과 9.7%인데 반하여 읍이나 면지역은 약19%를 차지하고 있어 시지역보다 소득의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지역 응답자들은 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읍지역은 자영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 응답자의 62.2%가 전업 주부이었으며, 자영업이 10.6%, 전문·관리직이 8.2%, 생산기능직이 6.0%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사무직이 4.8%, 판매·서비스직이 4.2%, 그리고 농·축산직이 3.9%로 나타났다.

#### IV. 결과 및 분석

#####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척도는 최하 6점에서 최고 30점의 범위를 갖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 점수가 21.14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밖에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지역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은 시지역 거주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면지역 거주자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과 삶의 질 수준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과 삶의 질 수준과의 관계는 301만원이상의 소득을 가진 집단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151만원~2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집단의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이하의 소득을 가진 집단

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수준과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삶의 질 수준

		N	평균	F값
성 별	남	320	21.96	0.38
	여	316	20.99	
지 역	시	296	21.85	7.63***
	읍	106	20.82	
	면	239	20.41	
연 령	35세 이하	187	21.71	3.10**
	36~40세	167	21.59	
	41~45세	113	20.68	
	46~50세	88	20.55	
	51세 이상	73	20.05	
교 육	초등졸이하	40	19.35	12.81***
	중 졸	111	19.60	
	고 졸	261	21.16	
	대졸이상	186	22.45	
소 득	100만원이하	65	19.02	4.17**
	101~150만	114	21.55	
	151~200만	136	21.69	
	201~250만	86	21.14	
	251~300만	59	21.07	
	301만이상	79	21.97	
직 업	전문·관리직	79	22.22	4.98**
	사무직	104	22.39	
	판매·서비스직	33	18.61	
	자영업	90	20.92	
	생산기능직	81	20.58	
	농·축산직	48	20.02	
	무직/전업주부	197	21.10	

\*\* p < 0.05 \*\*\* p < 0.001

2.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서로 다른 비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각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관계만이  $r=.51$  이었고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r=.5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생활영역	B(β)	t
지역환경	.20(.04)	.80
지역서비스	-.47(.09)	-2.05*
주거여건	.53(.10)	2.49*
가족생활	1.36(.25)	6.75***
친구관계	.57(.10)	2.79**
교육	.30(.07)	2.00*
건강	-.02(.00)	-.08
일 영역	.71(.14)	3.37***
여가생활	.33(.06)	1.60
경제생활	1.18(.22)	5.52***
상 수	6.27	5.77***
F값 = 27.89***		
R <sup>2</sup> = .32		

\*\*\* P < .001, \*\* P < .01, \* P < .05

<표 3>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은 10개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32%가 설명되고 있으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

역은 가족생활영역으로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생활영역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Andrews 외, 1976; Metzner, 1980; Campbell, 1981; Walker 외, 1989; 박미석, 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영역은 경제생활, 일영역, 그리고 친구관계 및 주거여건, 지역 사회 서비스, 자신의 교육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에 따른 삶의 질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경산시 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적인 수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표 2>, 시지역 주민이 가장 높고, 면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만족정도도 차이가 있었다.

<표 4> 지역에 따른 삶의 질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생활영역	지역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B(β)	B(β)	B(β)	B(β)
지역환경	.40(.07)	-1.00(.02)	.13(.03)	
지역서비스	-.72(.13)	-1.11(.21)*	-.33(.06)	
주거여건	.46(.08)	.76(.14)	.40(.08)	
가족생활	1.20(.22)***	2.53(.51)***	.96(.18)**	
친구관계	.49(.08)	.41(.08)	.69(.15)*	
교육	.27(.06)	.75(.19)*	.20(.05)	
건강	.16(.03)	-.63(.12)	.09(.02)	
일 영역	1.05(.19)**	.99(.21)*	.34(.07)	
여가생활	.35(.06)	-.75(.15)	.60(.13)	
경제생활	1.17(.21)**	1.22(.22)**	1.19(.24)***	
상 수	6.18***	6.58**	7.02***	
F값 =		13.22**	7.95***	8.66***
R <sup>2</sup> =		.33	.47	.29

\*\*\* P < .001, \*\* P < .01, \* P < .05

<표 4>에서 보면, 가족생활영역이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



요한 변수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읍지역 주민은 특히 가족생활의 비중이 높았다( $\beta=.51$ ). 한편, 시지역 주민의 삶의 질 인식에는 일영역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하여, 읍지역 주민은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가질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였다. 면지역 주민의 경우는 경제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컸으며, 시, 읍지역과는 달리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읍지역인 하양읍은 1990년대에 들어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지역 주민들은 식수나 공기오염도에 대해 세지역 가운데 가장 불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나, 문화·오락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지역이다(채정숙 외, 1996). 이런 점에서 특히 읍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인식에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며, 면지역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지역사회 서비스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지역 주민이 일에 대한 만족이 중요하다면, 면지역은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촌사회에서 중시되던 관계망의 중요성이 개인의 삶의 질 인식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각 지역의 차이는 도시화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어서 도시화 할수록 공동체와 관계된 요인보다는 개인, 가족, 일에 관계된 요인들이 삶의 질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0개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설명력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자신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곳은 읍지역( $R^2=.47$ )이며, 가장 설명력이 낮은 곳은 면지역( $R^2=.29$ )이다. 이러한 설명력의 차이는 결국 면지역 주민의 삶의 질 인식에는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 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농촌주민의 생활만족도에 객관적인 생활수준 및 실물자산의 영향이 크다고 한 연구결과(김인숙, 1993)나 도시주부에 비해 농촌 주부의 경우 소득적 정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Walker 외, 1989) 등을 고려해 볼 때, 농촌의 특성을 가진 면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은 주관적인 만족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수준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 4.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서 남·녀가 느끼는 삶의 질적인 수준은 비슷했다(표 2). 그러나 생활을 구성하는 10가지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5〉에서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여성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영역은 가족생활( $\beta=.26$ )이며, 다음이 일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생활 및 주거여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느끼는 삶의 질적인 수준은 10개 생활영역의 만족정도에 의해 34%가 설명되고 있다.

남성 역시 가장 영향력이 큰 영역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이며, 다음이 경제생활, 자신의 교육수준,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질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남성의 삶의 질은 이들 생활영역 만족정도에 의해 32%가 설명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적인 수준이 높은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의 경우보다 삶의 질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였다. 반면에, 일에 대한 만족정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삶의 질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또 여성들은 주거여건과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중요한 데 반해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교육수준에 대한 만족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생활영역	성별	
	여성 B(β)	남성 B(β)
지역환경	-.06(.01)	.42(.07)
지역서비스	-.42(.08)	-.48(.09)
주거여건	.70(.14)**	.34(.06)
가족생활	1.38(.26)***	1.38(.25)***
친구관계	-.36(.07)	.61(.11)*
교육	-.08(.02)	.54(.13)*
건강	-.46(.09)	.31(.06)
일 영역	1.15(.22)***	.50(.10)
여가생활	.57(.12)*	.07(.01)
경제생활	.95(.19)**	1.40(.24)***
상 수	10.06***	4.80**
F값 =		14.76***
R <sup>2</sup> =		.34
		14.06***
		.32

\*\*\* P < .001, \*\* P < .01, \* P < .05

여성들에게 일이란 직업과 가사노동을 모두 의미하게 되므로 취업주부인가 전업주부인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표 6〉에서 보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업주부는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가족생활, 여가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하여, 취업주부는 가족생활영역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며, 일에 대한 만족과 주거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전업주부가 인식하는 삶의 질적인 수준은 경제상태와 여가생활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취업을 하게 되면 가족과 일류 중심으로 삶의 질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을 가진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보면, 취업한 여성들은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일 및 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 가정적인 요인이 삶의 질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

〈표 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삶의 질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생활영역		B	β	t	
취업주부	경제생활	1.35	.29	4.04***	F = 23.42*** R <sup>2</sup> = .29
	가족생활	1.20	.25	3.58***	
	여가생활	.89	.20	3.00**	
상 수		10.69		8.20***	
취업주부	가족생활	2.06	.35	4.36***	F = 22.47*** R <sup>2</sup> = .38
	일 영역	1.64	.30	3.61***	
	주거여건	1.10	.20	2.58*	
상 수		5.56		2.95**	

\*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P < .001, \*\* P < .01, \* P < .05

는 반면, 남성들은 직업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및 친구관계 등의 가정외적인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는 자신의 직장과 가정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는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남자들은 직업생활과 관계가 큰 영역의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것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별 역할구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여자는 가정, 남자는 직장과 관련된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삶의 질의 영역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지역과 성별 요인을 중심으로 여러 변수들과의 상호관계를 밝힘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개인이 인식한 삶의 질 수준은 지역, 연령,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지역별

로는 시지역주민이 삶의 질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다음 읍지역, 면지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가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가족생활영역이 가장 높고, 그다음 경제생활, 일영역, 친구관계 및 주거여건, 지역사회서비스, 교육의 순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과 성별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지역에 따른 삶의 질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 보면, 시지역이나 읍지역은 가족생활영역이 가장 높고 그다음 경제생활, 일영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면지역에서는 경제생활영역이 가장 높고, 그다음 가족생활, 친구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시 혹은 읍지역)과 농촌지역(면지역)에서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즉, 도시에서는 가족생활의 유대감이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쉬우므로, 가족간의 유대감 및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농촌의 경우 경제생활이 도시보다 불안정하여 경제적 안정여부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생활영역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생활과 자신의 교육수준, 친구관계 등, 직업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만족과 경제적 여유, 편리한 주거여건 및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취업여부에 따라서는도 차이를 보였는데, 전업주부가 인식하는 삶의 질 수준은 경제상태와 여가생활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족생활과 자신의 일을 잘 조화

시킬 수 있는 여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생활영역이 개인이 인식한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임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생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프로그램 실시에는 종래의 여성중심의 과정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족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수준 향상이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정부나 지방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복지자금 조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소득수준과 경제적 복지수준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한 차원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가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삶의 질 만족도도 더불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파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그리고 성별로 처한 종합적인 여건과 환경의 개선문제가 요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취업알선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있거나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산업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영역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근로소득자 가계로 구성되는 도시의 경우 농촌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등의 퇴

직업풍은 고용에 의한 근로소득이 바탕이 되어 있는 많은 도시근로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들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시까지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재취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또, 기혼여성의 취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직장단위의 작업조건이나 통근문제를 개선하고 직장과 가사의 이중노동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인 탁아나 방과후 아동지도 등을 개별직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전업주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은, 전업주부에게 여가생활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말해준다. 자녀수가 줄어들고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난 중년기 이후의 삶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주부들의 여가활동이 주로 T.V시청 등의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자기개발 활동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하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단위로 운영되는 주민회관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참고로, 각 지역의 형편에 맞는 주민회관 등의 운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1) 김진국, "도시생활의 질에 대한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2) 김인숙, "농가의 생활수준과 생활만족수준 및 이에 따른 농가의 유형분석-생활의 질에의 접근을 위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3) \_\_\_\_\_ · 최은숙,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권 2호, 1993, 83-97.
- 4) 노자경, "농가의 경제적 복지수준 및 관련변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5) 문숙재 · 정은숙,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권 3호, 1985, 149-167.
- 6) 박미석,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14권 2호, 1996, 19-33.
- 7) 임정빈, "농촌 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4호, 1990.
- 8) 정구현 · 배규환 · 이달곤 · 최영명,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 전략: 성장 · 복지 · 환경의 조화, 1994, 87-104, 나남출판사.
- 9) 채정숙 · 조희금 · 박충선 · 정영숙,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실태 파악 및 복지 대책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4권 5호, 1996, 13-37.
- 10) 최은숙, 농가의 질적생활 진단을 위한 지표의 책정조사연구, 농촌진흥청, 1981.
- 11) \_\_\_\_\_ · 김인숙, "농촌가정생활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권 2호, 1990, 87-100.
- 12) Andrews, F. M., & Withey, S. B.,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1976.
- 13) Bubolz, M. M., Eigher, J., Evers, S., & Sontag, M.,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 1980, 103-136.
- 14) Campbell, A.,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1981.
- 15) Dunsing, M. M.,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1983.
- 16) Hafstrom, J. L., "Consumption Level as It Related to Quality of Life," *Compendium of Quality of Life Research*,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 Station, School of Human Resouce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Illinois, 1986.
- 17) Jan Drewnowski,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70, Geneva, 1970.
- 18) Metzen, E. J., *Qiuility of Life as Affected by Area of Residence*, North Central Regional Research Publication No. 270., Ames: Agriculture and Home Economics Experiment Station, Iowa Stat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80.
- 19) Slottije, D.J., Scully, G.W., Hirshberg, J.G., and Hayes, K.J.,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Westview Press, 1991.
- 20) Walker, F.S., "Home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Haftstrom, J.L.(ed), *Compendium of Quality of Life Research*, University of Illinois, 1986, 136-183.